

초·중학생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에 대한 활용 현황 및 요구 조사

박준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제1저자)

김동섭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과정(공동저자)

조보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교신저자)

- *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보고서 『초·중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I): 진단 도구 개발(RRI 2022-4)』(박준홍·조보경·박상우·김지영·조재윤, 2022) 중 진단 도구에 대한 활용·현황 및 요구 조사에 관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학교교육을 통해 반드시 길러주어야 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능력 중의 하나로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할 것이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OECD, 2005)와 21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수(Griffin, McGaw, & Care, 2012)와 같은 국외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은 핵심 역량으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22)까지 의사소통 역량은 국어 교과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의사소통 역량’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교육부, 2015: 75).¹⁾ 즉 의사소통 능력에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과 문어 의사소통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국어과 교과 역량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계승되고 있다. 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제시된 것을 유지하되, ‘디지털·미디어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자료·정보 활용 역량’을 수정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²⁾

이처럼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주어야 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구어 및 문어 의사소통 능력을 모두 포함해야 함에도, 지금껏 교육 주체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이 중 구어 의사소통 능력보다는 문어 의사소통 능력에 치우쳐져 있었다. 가령,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보장해야 할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능력은 읽기 및 쓰기 능력에 한정되어 있어,³⁾ 구어 의사소통 능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나 한글 책임교육 등과 같은 문해력 교육 관련 정책들 역시 교육 주체들의 관심이 주로 문어 의사소통 능력에 놓여 있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점은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개발 현황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가령, 읽기 능력 진단 도구로는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ACCENT, 독해력과 읽기 유창성을 평가하는 BASA-R, 읽기 성취와 인지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RA-RCP, 음운 인식, 빠른 이름 대기, 음운 기억 과제, 받아쓰기, 주제 글쓰기 등을 평가하는 KOLRA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김동일·이재호·장세영·안예지·안수진·황지영, 2017),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진단 도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단 도구로 한정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진단 도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국립국어원에서 성인의 듣기 및 말하기 능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진단 도구(민병곤·김종철·구본관·손원숙·김혜정·박재현 외, 2018)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22: 3).

- 2)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광의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하위 영역인 구어 의사소통과 문어 의사소통은 ‘구어’ 및 ‘문어’를 의사소통 앞에 병기하여 구분하였다.
- 3)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대학생의 핵심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K-CESA 진단 도구(송창용·손유미·이재열·김민석·김혜정, 2020),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김대희·강경숙, 2012)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문어 중심의 교육 상황에서 몇 안 되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로서 큰 의의를 지니며,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개발된 진단 도구는 모두 평가 대상이 성인이라 초·중학생에게 적용하기 어렵고, 그 목적상 교육과정과는 무관한 평가들에 따라 개발된 것이기에 교수·학습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역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한 진단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행을 통한 진단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학생⁴⁾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활용 현황과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 사항을 조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가령, 이창덕·임칠성·심영택·원진숙(2006)에서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감정이

4) 학교급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정한 것은, 고등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 시험을 목표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어,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가 더욱 활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입 능력, 객관적 관점 확보 능력, 관계 규범에 대한 민감도, 상황에 대한 지식 정도, 상위 인지 능력, 상황 운영의 전략, 효과적 듣기 기술, 말하기 불안 대처 기술로 구성된 능력으로 보고 있는 반면, 김종임(2021)에서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경청의 기술, 자기노출 및 자기표현의 능력, 공감의 능력, 관계 형성으로 구성되는 능력으로, 김건희·한은경·김다현·김수현·김지은·김현진 외(2020)에서는 정보 수집, 경청, 고정관념적 사고 극복, 창의적 개방적 의사소통, 자기 드러내기, 주도적 의사소통, 타인 관점 이해로 구성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한편, Trenholm & Jensen(2013)에서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과정 능력(process competence)과 수행적 능력(performative competence)으로 크게 구분하고, 과정 능력의 하위 요소로 해석 능력, 역할 수행 능력, 자기 제시 능력, 목표 설정 능력, 메시지 전환 능력을 제시한다. 이때의 과정 능력은 내재적 지식(implicit knowledge)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지식에 해당한다. 반면, 수행적 능력은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지식과 수행적 능력으로 구성된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구어 의사소통이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능력임을 시사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이미 여러 국제 연구들에서 주요한 핵심 역량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로부터 그 개념을 살펴볼 수도 있다. 가령, OECD(2005)에서는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 하기’라는 핵심 역량의 세부 역량으로 ‘타인과 관계 잘 맺기’, ‘협력적으로 팀으로 일하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의 세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UNESCO(2016)에서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사회에 도달하고, 우리가 직면한 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을 제안하면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며, 주의 깊게 듣고, 이해를 명확히 하고, 다른 관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구어 의사소통 역량을 핵심 역량의 하

나로 강조하고 있다. 교육자 및 교육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P21도 의사소통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사소통 역량을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구어, 문어, 비언어적 기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BattleforKids, 2022).

2.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 도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은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초·중학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로 제한하면 그 수는 더 적어진다. 이에 여기에서는 평가 목적과 적용 대상보다는 평가 항목과 문항 유형 등을 중심으로 기존 평가 도구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국립국어원의 ‘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민병곤 외, 2018)는 20세부터 69세까지의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의 각 영역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디지털) 국어 능력을 평가하였다. 구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에 해당하는 듣기 영역은 선택형 10문항을 총 15분 동안, 말하기 영역은 수행형 3문항을 총 15분 동안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듣기의 경우,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로 나뉘는데, 이는 듣기에서 이해의 사고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 요소를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 듣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명 목적과 설득 목적 중심의 다양한 담화 유형을 반영하고 있다. 말하기의 경우, ‘설득하는 말하기, 설명하는 말하기’로 나누어 말하기의 목적성을 기준으로 평가 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말하기 상황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적 대화, 사적(개인적) 대화, 공적 토론의 담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국어과 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며, 평가 영역으로 듣기·말하기의 구어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평가 소요 시간은 45분이며, 20문항(객관식 12문항, 서답형 8문항)을 다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의 평가들은 총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영역’으로, 듣기·말하기 외에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세분화된다. 평가들의 두 번째 차원은 ‘역량’으로, 6가지 국어 교과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에 관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차원은 ‘맥락’으로, 담화, 문학 및 비문학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텍스트를 고루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셋째, ‘핵심 역량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에서의 학생 평가 방안’(이정우·구남욱·이인화, 2016)은 공동체 역량과 함께 의사소통 역량 평가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CoE(Council of Europe: 유럽 평의회) 프로젝트와 ATC21S(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평가 요소와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을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 범주화하고 이를 세분화하였다. 지식의 범주를 ‘의사소통 도구’와 ‘의사소통 맥락’으로 나누어 의사소통의 양식적인 측면과 의사소통을 둘러싼 맥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기능의 범주는 크게 이해와 수용, 생산과 표현,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는 점검과 조정의 관계로 나뉘어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치/태도의 범주는,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 ‘의사소통에서의 적극성’, ‘의사소통에서의 책임감’으로 분류하여 의사소통 역량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박선화·오택근·이경남·이명애·이영태·김호영 외(2021)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 도구 개발(II)’ 연구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개념 정의한 문해력의 구성 요소에는 듣기, 말하기 영역이 포함된다. 문항의 정답률이 80~90% 수준이 되도록 난도를 설정하였으

며, 문항의 형태는 선다형, 서답형, 수행형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듣기·말하기 영역의 문항은 삽화, 내레이션,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의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다섯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한 종합적 국어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ToKL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과 일반인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하다. 시험은 총 130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90문항이며, 이 중 80문항은 객관식(5지 선다형), 10문항은 주관식이다.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는 말하기 영역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듣기’ 영역에서의 주관식 문항으로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언어 기능 영역마다 ‘사실적 이해, 추론, 비판, 창의’로 구분되는 사고력을 기준으로 문항을 안배하여 출제한다(한국언어문화연구원, 2022).

여섯째, ‘고등학생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김대희·강경숙, 2012)는 국내 고등학생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로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 공통 능력’을 설정하고, 구성 요소마다 구체적인 세부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말하기 능력은 ‘유창성, 논리적 구성력,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자기표현’의 5가지 세부 요소로 구성하였고, 듣기 능력은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의 4가지 세부 요소로 구성하였다. 공통 능력은 ‘맥락, 사회적 관계, 태도’의 3가지 세부 요소로 구성하였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설문 조사이다. 다만, 본설문은 대규모 인

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므로 설문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중소도시에 위치한 D초등학교와 H중학교의 각 3명씩 총 6명의 교사에게 먼저 설문 문항에 답해줄 것을 이메일로 요청하였다. 이후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2022. 4. 7. D초등학교, 2022. 4. 12. H중학교), 설문 구성에 관한 수정·보완 사항과 설문 내용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심층 면담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설문은, 초등학교의 경우 2022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중학교의 경우 2022년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1. 표집 대상 및 참여자 정보

설문의 표본은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3%를 지역별 규모에 맞게 충화 표집하였다. 이때 설문 조사의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는 6학년 담임교사, 중학교는 3학년 담당 국어 교사로 한정하였다.⁵⁾ 선정된 표집 대상 학교에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교사들이 설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 1,489명과 중학교 국어 교사 712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참여자의 응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최종 응답자 수는 초등학교 교사 1,290명, 중학교 국어 교사 549명이었다. 요구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력은 5년 이하에서부터 20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교육 경력이 12.24년이었으며 중학교의 경우 평균 15.57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교급 및 성별은 <표 1>과 같다.

5) 이는 이 설문의 후속 연구 과정으로 가장 먼저 초등학교급에서는 6학년, 중학교급에서는 3학년, 즉 각 학교급의 최종 학년을 대상으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실제로 개발하기 위함이었다.

〈표 1〉 학교급 및 성별에 따른 요구 조사 참여자 정보(박준홍·조보경·박상욱·김지영·조재윤, 2022: 68)

학교급	인원수 (명) / 백분율 (%)		
	남	여	총합
초등학교	510 (39.5)	780 (60.5)	1,290 (100.0)
중학교	98 (17.9)	451 (82.1)	549 (100.0)

한편, 지역 규모별 요구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비율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도시 소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전체 응답자의 46.7%(60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소 도시는 28.8%(371명), 읍면 지역은 24.5%(316명)의 순이었다. 중학교 교사의 지역별 비율도 초등학교와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대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49.0%(26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소 도시는 29.7%(163명), 읍면 지역은 21.3%(117명) 순이었다.

〈표 2〉 학교급별 요구 조사 참여자의 지역 규모별 비율(박준홍 외, 2022: 69)

학교급	인원수 (명) / 백분율 (%)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총합
초등학교	603(46.7)	371(28.8)	316(24.5)	1,290(100.0)
중학교	269(49.0)	163(29.7)	117(21.3)	549(100.0)

2. 설문 내용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 대상자들이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에 대한 일관된 상을 갖고 설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델파이조사 결과⁶⁾를 바탕으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와

6) 델파이조사 결과는 설문 조사 내용의 전제에 해당하고, 분량상 본 연구에서는 다룰 수 없어 제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준홍 외(2022) 참고.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⁷⁾

(의사소통⁷⁾ 능력 정의)

의사소통 능력은 다원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음성 언어 및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 등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거나 이해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조정하며,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형성·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의사소통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견지하는 능력을 의미함.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소)

영역	하위요소	의미
지식	의사소통 도구	언어, 준언어, 비언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
		다양한 매체와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맥락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의 맥락에 대한 이해
기능	듣기	사실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
	말하기	설득하기
		정보 전달·공유하기
		친교 관계 형성·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점검과 조정	의사소통 내용 및 표현 점검·조정하기

7) 해당 설문에서 의사소통은 구어 의사소통임을 설명하여, '구어'를 의사소통 앞에 병기하지 않았다.

태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의 효용 및 영향력 인식
	의사소통 참여자에 대한 존중	경청
		배려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의사소통에서의 적극성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소통에서의 책임감	의사소통 윤리

한편, 설문의 하위 영역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활용 현황 및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 사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가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한다면 어떠한 진단 도구들을 활용하며,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활용 경험' 영역을 설정하였다. 둘째, 별도의 진단 도구 없이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를 통해서도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를 통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의 가능성' 영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현재 활용 가능한 진단 도구보다 체계적으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체계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의 필요성' 영역을 설정하였다. 넷째, 개별 학교나 교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단 도구의 자체 개발 경험' 영역과, '진단 문항 자체 개발 시의 방해 요소' 영역을 설정하였다. 다섯째, 교육부나 교육청 혹은 연구 기관 차원에서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할 경우, 진단 도구의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진단 도구 활용 시 고려 사항' 영역, '진단 결과 제공 방식'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전체 설문 영역과 영역별 설문 문항 및 응답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요구 조사 설문의 개요(박준홍 외, 2022: 70-71 수정)

영역	설문 문항	응답 유형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활용 경험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 외에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는 도구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다형
	(‘있다’를 선택한 경우) 어떤 진단 도구를 활용하셨습니까?	서술형
	(‘없다’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수행평가 및 지필고시를 통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의 가능성	별도의 진단 도구 없이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만으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다형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체계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의 필요성	현재 활용 가능한 진단 도구보다 체계적으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다형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경우)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개발 필요성을 낮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술형
진단 도구의 자체 개발 경험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자체 개발을 시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다형
	(‘있다’를 선택한 경우) 진단 도구 개발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문항 유형에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선다형
진단 문항 자체 개발 시의 방해 요소	문항 제작의 경험 부족	선다형
	활용 가능한 담화 자료의 부족	
	문항 제작에 관한 안내(지침) 부족	
	체점 기준 설정의 어려움	
	음성 파일 제작의 어려움	
	행정 업무 부담에 따른 시간 부족	
	기타 의견	서술형

진단 도구 활용 시 고려 사항	진단 결과에 따른 상세한 피드백 정보 제공	선다형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제공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보충 교수·학습 자료 제공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단 문항 제공	
	수준별 진단 도구 제공	
	서답형, 수행형 등의 명확한 채점 기준	
	진단의 용이성을 위한 컴퓨터 혹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기반 진단 시스템 제공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가 반영된 진단 문항의 내용	서술형
진단 결과 제공 방식	기초 미달 여부(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 혹은 성취 수준(1~4수준)을 알려주는 준거 점수	선다형
	상대적 서열을 알려주는 규준 점수(퍼센타일, 표준 점수 등)	
	기타 의견	서술형

3. 분석 방법

위 설문에 대한 결과 값은 기본적으로 평균, 표준 편차 등의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Statistics 28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응답 특성을 분석한 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담 전사 자료와 설문 조사 시의 서술형 응답을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 전사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며, 기술 통계 값이 의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코딩 처리한 후 내용별로 유목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활용 경험

설문 조사에서는 먼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진단 도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진단 도구 활용의 현황을 분석하고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를 제외한 다른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활용 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활용 경험 유무(박준홍 외, 2022: 72)

학교급	인원수 (명) / 백분율 (%)		
	있다	없다	총합
초등학교	292(22.6)	998(77.4)	1,290(100.0)
중학교	135(24.6)	414(75.4)	549(100.0)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약 77%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도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도구를 활용한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4%, 그리고 사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75%로 분석되었다. 또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서술형 답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진단 도구로 제시한 것이 ‘문학작품 감상 발표하기’, ‘매체 자료 활용하여 발표하기’, ‘존경하는 인물 발표하기’, ‘그림 카드나 학습지 활용하기’ 등과 같은 것들이어서 실제

로 진단 도구라고 하기에는 매우 단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상당수 교사들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활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를 통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의 가능성

별도의 진단 도구 없이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만으로⁸⁾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 진단의 가능성(박준홍 외, 2022: 73)

학교급	인원수 (명) /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총합		
초등 학교	67 (5.2)	493 (38.2)	[425] ⁹⁾ (32.9)	262 (20.3)	43 (3.3)	1,290 (100.0)	2.78	.94
중학교	39 (7.1)	210 (38.3)	[196] (35.7)	93 (16.9)	11 (2.0)	549 (100.0)	2.68	.91

- 8) 수행평가에는 물론 지필의 방식도 포함되겠으나, 구어 의사소통에 관해 묻고 있는 설문의 맥락상 여기에서의 수행평가가 실제로 듣고 말하는 방식의 수행평가란 점은 자명하기에 대표적인 2가지 평가 방식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와 같이 표기하였다.
- 9) []는 중앙값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만으로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응답자의 평균은 2.78이었으며 표준편차는 .94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응답자 전체의 38.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에 32.9%, ‘그렇다’에 2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사들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응답자의 평균은 2.68이었으며 표준편차는 .91로 나타났다. 중학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응답은 ‘그렇지 않다’로, 38.3%의 교사가 이와 같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에 35.7%, ‘그렇다’에 16.9%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 모두 매우 긍정적인 응답인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각의 응답 비율은 3.3%와 2.0%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모두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만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심층 면담을 통해서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만으로는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수행평가와 지필고사의 결과에만 근거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사2: 그 친구의 어려운 점은 지필고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이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 대화가 진행이 돼요. 그 친구의 주제를 받아서 이제 핑퐁처럼 대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 할 말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략) 평상시에 의사소통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일찍 진단해 내거나 발견을 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 4. 7. D초등학교 교사2 심층 면담 기록〉

심층 면담에 참여한 중학교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행 평가와 지필고사는 실제 의사소통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사1: 수행평가나 지필고사가 어떤 단편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사 소통 능력이라는 건 전반적인 걸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진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중략) 그리고 뭐 수행평가에서 발표가 있다고 한들 그 발표가 결국에는 써 온 것을 읽는 것이지 그것이 누군가 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구어 능력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2. 4. 12. H중학교 교사1 심층 면담 기록〉

3. 체계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의 필요성

다음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현재 활용 가능한 진단 도구보다 체계적인 진단 도구의 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표 6〉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 도구 보다 체계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에 상당히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응답자의 평균이 3.87, 표준 편차는 .76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에 19.8%, ‘매우 그렇다’에 16.9% 순으로 응

답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응답자의 평균은 3.94, 표준편차는 .74로 나타났다.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19.5%, ‘보통이다’에 18.0%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0.8%와 0.7%로, 다른 선택지를 선택한 비율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현재 존재하는 도구들보다 체계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체계적인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의 필요성(박준홍 외, 2022: 75)

학교급	인원수 (명) /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총합		
초등 학교	10 (0.8)	50 (3.9)	256 (19.8)	(756) (58.6)	218 (16.9)	1,290 (100.0)	3.87	.76
중학교	4 (0.7)	14 (2.6)	99 (18.0)	(325) (59.2)	107 (19.5)	549 (100.0)	3.94	.74

심층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래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구어 의사소통 진단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사1: 그냥 모국어니까 당연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교육만 계속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복잡해지는 다원화 사회에서 점점 의사소통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2022. 4. 7. D초등학교 교사1 심층 면담 기록〉

한편, 중학교 교사는 현재 평가 방식의 한계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교사2: 수행평가나 지필고사 특히 지필고사는 거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고요. 수행평가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 4. 12. H중학교 교사2 심층 면담 기록〉

4.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자체 개발 경험

다음으로 교사들이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개발 시도 경험(박준홍 외, 2022: 77)

학교급	인원수 (명) / 백분율 (%)		
	있다	없다	총합
초등학교	40(3.1)	1,250(96.9)	1,290(100.0)
중학교	28(5.1)	521(94.9)	549(100.0)

설문 조사에 응답한 교사들 대부분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96.9%, 중학교의 경우 94.9%의 응답자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개발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초등학교 교사의 3.1% 그리고 중학교 교사의 5.1%만이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10) 이에 관한 하위 질문에서 진단 도구는 교사 협의체보다는 거의 개별 교사 단위로 개발을

이상의 응답 결과를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과 연계하여 살펴볼 때,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의 필요성과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진단 문항 자체 개발 시의 방해 요소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개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문항 제작 경험 부족’, ‘활용 가능한 담화 자료의 부족’, ‘문항 제작에 관한 지침 부족’, ‘채점 기준 설정의 어려움’, ‘음성 파일 제작의 어려움’, 그리고 ‘행정 업무의 부담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질문을 구체화하여,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 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진단 문항 자체 개발 시의 방해 요소에 대한 의견(박준홍 외, 2022: 78 수정)

설문 범주 및 학교급	초	인원수 (명) / 백분율 (%)						평균 평균	표준 편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총합		
문항 제작의 경험 부족	초	19 (1.5)	54 (4.2)	165 (12.8)	[670] (51.9)	382 (29.6)	1,290 (100.0)	4.04	.85
	중	8 (1.5)	29 (5.3)	107 (19.5)	[285] (51.9)	120 (12.9)	549 (100.0)	3.87	.86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단 도구 문항은 선다형이나 단답형보다는 서논술형이나 수행형으로 주로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가능한 담화 자료의 부족	초	24 (1.9)	114 (8.8)	214 (16.6)	[627] (48.6)	311 (24.1)	1,290 (100.0)	3.84	.95
	중	11 (2.0)	47 (8.6)	118 (21.5)	[267] (48.6)	106 (19.3)	549 (100.0)	3.75	.93
문항 제작에 관한 안내 (지침) 부족	초	11 (0.9)	48 (3.7)	163 (12.6)	[643] (49.8)	425 (32.9)	1,290 (100.0)	4.10	.82
	중	6 (1.1)	27 (4.9)	89 (16.2)	[286] (52.1)	141 (25.7)	549 (100.0)	3.96	.85
체점 기준 설정의 어려움	초	7 (0.5)	62 (4.8)	145 (11.2)	[532] (41.2)	544 (42.2)	1,290 (100.0)	4.20	.86
	중	6 (1.1)	22 (4.0)	73 (13.3)	[244] (44.4)	204 (37.2)	549 (100.0)	4.13	.87
음성 파일 제작의 어려움	초	46 (3.6)	139 (10.8)	207 (16.0)	[457] (35.4)	441 (34.2)	1,290 (100.0)	3.86	1.11
	중	15 (2.7)	53 (9.7)	93 (16.9)	[230] (41.9)	158 (28.8)	549 (100.0)	3.84	1.03
행정 업무 부담에 따른 시간 부족	초	7 (0.5)	23 (1.8)	125 (9.7)	380 (29.5)	[755] (58.5)	1,290 (100.0)	4.44	.78
	중	2 (0.4)	14 (2.6)	62 (11.3)	186 (33.9)	[285] (51.9)	549 (100.0)	4.34	.81

분석 결과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교사들은 문항 제작 경험이 부족하여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응답이(M 4.04, SD .85) 중학교 응답(M 3.87, SD .8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29.6%, ‘보통이다’에 12.8%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에 19.5%, ‘매우 그렇다’에 12.9% 순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대체로 교사들은 문항 개발 시에 활용 가능한 담화 자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응답이(M 3.84, SD .95) 중학교 응답(M 3.75,

SD .9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24.1%, ‘보통이다’에 16.6%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에 21.5%, ‘매우 그렇다’에 19.3% 순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대체로 교사들은 의사소통 문항 제작에 관한 안내 또는 지침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응답이(M 4.10, SD .82) 중학교 응답(M 3.96, SD .8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32.9%, ‘보통이다’에 12.6%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25.7%, ‘보통이다’에 16.2% 순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대체로 교사들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개발할 때 채점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응답이(M 4.20, SD .86) 중학교 응답(M 4.13, SD .8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에 41.2%, ‘보통이다’에 11.2%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는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37.2%, ‘보통이다’에 13.3%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섯째, 대체로 교사들은 음성 파일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응답과(M 3.86, SD 1.11) 중학교 응답이(M 3.84, SD 1.03) 비슷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34.2%, ‘보통이다’에 16.0%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28.8%, ‘보통이다’에 16.9% 순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모두 행정 업무로 인하여 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항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응답이(M 4.44, SD .78) 중학교 응답(M 4.34, SD .8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5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에 29.5%, ‘보통이다’에 9.7%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에 33.9%, ‘보통이다’에 11.3% 순으로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평균이 4.0 이상으로 나타난 질문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의사소통 진단 도구 개발 시 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특히 ‘문항 제작 경험 부족’, ‘문항 제작과 관련된 안내의 부족’, ‘채점 기준 설정의 어려움’, ‘행정 업무 부담’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들은 ‘채점 기준의 설정의 어려움’, 그리고 ‘행정 업무 부담’을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 시의 주요한 방해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개발할 때 교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채점 기준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담에서 나온 이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3: 성취 기준에 따라서 채점 기준을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를 전담해서 맡을 만한 부서나 아니면 교육청 쪽에서 전담해서 만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고요. 채점 기준 같은 것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한 게 성취 기준 바탕으로 할 건데 이제 말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교사가 보고 평가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2. 4. 7. D초등학교 교사3 심층 면담 기록〉

또한,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일은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교사들은 지적하였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 업무 부담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교사3: 교사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이 이제 수업과 생활 지도입니다. 고학년 기준으로 수업을 마치면 하루 일과가 2시 넘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있는 대부분의 시간이 학생들과 생활하는 거잖아요. 수업을 하고 생활 지도를 하면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자료 개발이라든가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2022. 4. 7. D초등학교 교사3 심층 면담 기록〉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의사소통 진단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의사소통 진단 도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문항을 개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교육청과 같은 개별 학교 이상의 단위에서 문항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6.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활용 시 고려 사항

다음으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활용할 때 교사들이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진단 결과에 따른 상세한 피드백 정보 제공’,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제공’,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보충 교수·학습 자료 제공’ 등 8가지로 항목화하여

질문하였으며, 이들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활용 시 고려 사항(박준홍 외, 2022: 82 수정)

설문 범주 및 학교급		인원수 (명) /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총합		
진단 결과에 따른 상세한 피드백 정보 제공	초	3 (0.2)	8 (0.6)	97 (7.5)	[605] (46.9)	577 (44.7)	1,290 (100.0)	4.35	.67
	중	4 (0.7)	3 (0.5)	54 (9.8)	[254] (46.3)	234 (42.6)	549 (100.0)	4.30	.73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제공	초	4 (0.3)	12 (0.9)	130 (10.1)	[540] (41.9)	604 (46.8)	1,290 (100.0)	4.34	.72
	중	5 (0.9)	4 (0.7)	52 (9.5)	[223] (40.6)	265 (48.3)	549 (100.0)	4.35	.76
기정에서 활용 가능한 보충 교수·학습 자료 제공	초	18 (1.4)	75 (5.8)	331 (25.7)	[525] (40.7)	341 (26.4)	1,290 (100.0)	3.85	.93
	중	8 (1.5)	48 (8.7)	197 (35.9)	[201] (36.6)	95 (17.3)	549 (100.0)	3.60	.92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단 문항 제공	초	5 (0.4)	33 (2.6)	225 (17.4)	[649] (50.3)	378 (29.3)	1,290 (100.0)	4.06	.78
	중	4 (0.7)	21 (3.8)	126 (23.0)	[264] (48.1)	134 (24.4)	549 (100.0)	3.92	.83
수준별 진단 도구 제공	초	3 (0.2)	18 (1.4)	157 (12.2)	[587] (45.5)	525 (40.7)	1,290 (100.0)	4.25	.74
	중	7 (1.3)	12 (2.2)	75 (13.7)	[257] (46.8)	198 (36.1)	549 (100.0)	4.14	.83
서답형 수행형 등의 명확한 채점 기준	초	3 (0.2)	15 (1.2)	133 (10.3)	481 (37.3)	[658] (51.0)	1,290 (100.0)	4.38	.73
	중	6 (1.1)	4 (0.7)	50 (9.1)	[215] (39.2)	274 (49.9)	549 (100.0)	4.36	.77

진단의 용이성을 위한 컴퓨터 혹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기반 진단 시스템 제공	초	12 (0.9)	39 (3.0)	213 (16.5)	[508] (39.4)	518 (40.2)	1,290 (100.0)	4.15	.87
	중	6 (1.1)	6 (1.1)	102 (18.6)	[231] (42.1)	204 (37.2)	549 (100.0)	4.13	.83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가 반영된 진단 문항의 내용	초	4 (0.3)	20 (1.6)	182 (14.1)	[527] (40.9)	557 (43.2)	1,290 (100.0)	4.25	.78
	중	5 (0.9)	4 (0.7)	79 (14.4)	[210] (38.3)	251 (45.7)	549 (100.0)	4.27	.80

첫째, 대체로 교사들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가 상세한 피드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응답이(M 4.35, SD .67) 중학교 응답보다(M 4.30, SD .73) 근소하게 높았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44.7%, ‘보통이다’에 7.5%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42.6%, ‘보통이다’에 9.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관한 서술형 응답과 심층 면담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단이 단순히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되어야 할 교수학습상의 방향을 얻기 위해 진단 결과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었다.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활용 시 고려 사항(서술형 응답)〉

“구어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할 때 가이드라인(충분한) 결과 값이나 특성이 가지 고 있는 의미에 대한 해석과 안내, 의사소통 진단 도구 활용의 결과와 피드백 정 보를 활용할 때의 유의점, 구어 의사소통 도구와 문어 의사소통 도구 사이의 상 호 관계와 결과 값을 분석하는 방법”(초등학교)

교사3: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 이 학생이 무엇이 부족한지, 거기다 추가해서 그럼 이 부족함을 채우려면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 그리고 부족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되게 잘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어떤 학습이 더 필요한지까지 포함이 되면 맞춤형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 4. 12. H중학교 교사3 심층 면담 기록〉

둘째, 대체로 교사들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에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제공되기를 원하였다. 이에 관한 초등학교의 응답자(M 4.34, SD .72) 중학교 응답자(M 4.35, SD .76) 비슷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에 41.9%, ‘보통이다’에 10.1%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에 40.6%, ‘보통이다’에 9.5% 순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대체로 교사들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에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보충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제공되기를 원하였다. 초등학교의 응답자(M 3.85, SD .93) 중학교 응답자(M 3.60, SD .9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26.4%, ‘보통이다’에 25.7%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에 35.9%, ‘매우 그렇다’에 17.3% 순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대체로 교사들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단 문항 제공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응답자(M 4.06, SD .78) 중학교 응답자(M 3.92, SD .8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5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29.3%, ‘보통이다’에 17.4%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

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24.4%, ‘보통이다’에 23.0%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섯째, 대체로 교사들은 수준별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가 제 공되기를 원하였다. 초등학교의 응답이(M 4.25, SD .74) 중학교 응답(M 4.14, SD .8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40.7%, ‘보통이다’에 12.2%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36.1%, ‘보통이다’에 13.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관한 서술형 응답으로는 아래와 같이 학생들 간 큰 수준 차이로 인해 어떤 학생에게는 문항이 쉬워 진단이 너무 일찍 끝날 수 있거나, 어떤 학생에게는 너무 어려워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나,¹¹⁾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진단 도구가 일괄적으로 제시될 경우, 제대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활용 시 고려 사항(서술형 응답)〉

“의사소통 능력은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큽니다. 수준별 도구가 있어야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게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급 내 학생들 간 수준 차가 큰 경우에, 먼저 활동을 끝낸 친구의 경우 잉여 시간 활용의 문제점, 활동을 늦게 끝낸 친구의 최소한의 성취기준 설정 문제점을 고려해야 함.”

(중학교)

11) 사실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은 문어 의사소통 능력의 진단과는 다르게 수준에 따라 진단 시간이 달라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가령 듣기 영역은 듣기 자료를 다 같이 듣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형식이 될 것이고, 말하기 영역은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말하기 영역의 경우 잘하는 학생이 더 충실히 답을 하기에 더 늦게 진단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사의 우려는 진단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수준 차이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체로 교사들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에서 명확한 채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응답과(M 4.38, SD .73) 중학교 응답이(M 4.36, SD .77) 비슷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에 37.3%, ‘보통이다’에 1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9.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에 39.2%, ‘보통이다’에 9.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관한 심층 면담에서는 아래와 같이 채점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진단 도구상에 명확한 채점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교사3: 안 그래도 밀하는 걸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가오는 의미 느껴지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초점을 두는 주제, 뭐 초점을 두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채점 기준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진단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2022. 4. 7. D초등학교 교사3 심층 면담 기록〉

일곱째, 대체로 교사들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의 용이성을 위하여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진단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응답과(M 4.15, SD .87) 중학교 응답이(M 4.13, SD .83) 비슷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에 39.4%, ‘보통이다’에 16.5%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는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37.2%, ‘보통이다’에 18.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관한 심층 면담에서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사용할 때 편리성이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이 매체 기기에 익숙하며 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매체 기반의 진단 도구가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사1: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런 거에 가깝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2022. 4. 7. D초등학교 교사1 심층 면담 기록〉

교사3: 요새 애들은 동영상이나 멀티미디어 이런 거 친숙하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활용하면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2022. 4. 12. H중학교 교사3 심층 면담 기록〉

마지막으로, 대체로 교사들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활용 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가 반영된 진단 문항이 포함되었는지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응답과(M 4.25, SD .78) 중학교 응답이(M 4.27, SD .80) 비슷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에 40.9%, ‘보통이다’에 14.1%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에 38.3%, ‘보통이다’에 14.4%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급의 구분 없이 응답자들의 평균이 4.0 이상으로 분석된 문항은 ‘진단 결과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 제공’,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제공’, ‘수준별 진단 도구 제공’, ‘서답형 및 수행형 평가를 위한 명확한 채점 기준 제시’, ‘진단의 편리성을 고려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제공’,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가 반영된 진단 문항 제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에 대한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7. 진단 결과의 제공 방식

다음으로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질문에서 제시한 진단 결과 제공 방식은 '기초 미달' 등의 성취 수준 정보를 제공하는 준거 점수 방식과 학생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준 점수 방식이다.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결과 제공 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표 10〉과 같다.

〈표 10〉 의사소통 능력 진단 결과 제공 방식에 대한 의견(박준홍 외, 2022: 86 수정)¹²⁾

설문 범주 및 학교급	인원수 (명) /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총합			
기초 미달 여부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 혹은 성취 수준(1~4수준)을 알려주는 준거 점수 기초 미달 여부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 혹은 성취 수준(1~4수준)을 알려주는 준거 점수	초	14 (1.1)	29 (2.2)	160 (12.4)	[623] (48.3)	464 (36.0)	1,290 (100.0)	4.16	.80
	중	6 (1.1)	8 (1.5)	79 (14.4)	[273] (49.7)	183 (33.3)	549 (100.0)	4.13	.79
상대적 서열 ¹²⁾ 을 알려주는 규준 점수(퍼센타일, 표준 점수 등) 예: 학생 A는 98%, 학생 B는 50%	초	71 (5.5)	190 (14.7)	372 (28.8)	[413] (32.0)	244 (18.9)	1,290 (100.0)	3.44	1.12
	중	33 (6.0)	67 (12.2)	[190] (34.6)	198 (36.1)	61 (11.1)	549 (100.0)	3.34	1.03

12) 상대적 서열은 시도 비교 등의 자료로 쓰이지 않으며 오직 교수·학습상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설문에 밝힌 상태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구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결과 제공 방식에 대하여 학생의 등급 및 성취 수준을 제공하는 준거 점수 방식을, 상대적 서열을 제공하는 규준 점수 방식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준거 점수 방식이 적합하다는 응답이(M 4.16, SD .80), 규준 점수 방식의 응답보다(M 3.44, SD, 1.12) 더 높았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도 준거 점수 방식이 적합하다는 응답이(M 4.13, SD .79) 규준 점수 방식의 응답보다(M 3.34, SD 1.03) 더 높았다. 준거 점수 제공 방식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36.0%, ‘보통이다’에 12.4% 순으로 응답하였다.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중학교 응답자 중에서도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에 33.3%, ‘보통이다’에 14.4%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는 학생의 성취도나 능숙도를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성장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진단 결과를 제공할 때에는 경쟁과 선발의 목적보다는 교육적 환류가 이루어지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활용 경험’, ‘수행평가 및 지원고사를 통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의 가능성’, ‘체계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의 필요성’, ‘진단 도구의 자체 개발 경험’, ‘진단 문항 자체 개발 시의 방해 요소’, ‘진단 도구 활용 시 고려 사항’, ‘진단 결과의 제공

방식’의 7가지 측면에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활용 현황과 이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는 현재 거의 없으며, 기존의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의 방식으로도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진단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교사들은 체계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개별 교사 차원에서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결국 교육부나 연구 기관 차원에서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진단 도구 활용과 결과 제공 방식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결과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선발 시험이나 자격시험과 같은 고부담 검사와는 다르게, 진단 검사는 학기 초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학습자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단 결과를 도출하는 것 자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과 연계되는 환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진단 평가는 일회적 성격의 평가라기보다는 교수·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의 관심은 단순히 진단 검사를 치르는 데에 있기보다는 진단을 통해 그 이후의 교수·학습 과정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만약 진단 결과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까지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진단 도구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진단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에서 교사들은 ‘수준별 진단 도구의 제공’을 진단 도구 활용 시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반 내에서도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준별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학교교육을 통해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교육 주체들의 큰 관심이 없었던 만큼 문해력 못지않게 학생 간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격차는 클 수 있다. 따라서 가령 몇 단계의 수준별로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해당 학습자의 수준에 보다 적합한 진단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명확한 채점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진단 도구를 활용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채점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진단하는 문항을 개발할 때 채점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진단 도구 개발 시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채점 기준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문항 개발 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진단 문항에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상당수의 교사들이 진단 도구 활용 시의 고려 사항으로 꼽은 바 있다. 학습 동기가 낮고 진단 검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 진단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참여 동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진단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매체를 기반으로 진단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습 동기가 낮고, 진단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학생들을 위해서는 매체 기반의 진단 도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의 학생들이 매체에 익숙한 세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활용과 보급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체 기반의 진단 도구 개발 여건 역시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상의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개발 시 개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본 논문은 2023.11.07. 투고되었으며, 2023.11.13. 심사가 시작되어 2023.12.0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교육부(2015),『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국어과 교육과정(제2022-33호)』, 세종: 교육부.
- 김건희·한은경·김다현·김수현·김지은·김현진·김혜인·민소희·박수경·방윤선·오현정(2020),「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공감능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20(7), 451-465.
- 김대희·강경숙(2012),「고등학생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개발」,『국어교육학연구』45, 169-213.
- 김동일·이재호·장세영·안예지·안수진·황지영(2017),「국내 읽기이해 관련 검사도구 특성 분석」,『아시아교육연구』18(1), 121-144.
- 김종임(2021),「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22(3), 118-128.
- 민병곤·김종철·구본관·손원숙·김혜정·박재현·김승현·서보영·이문수·장지혜·이효정·차경미·강지영·김동섭·허모아(2018),『2018년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2018-01-53)』, 서울: 국립국어원.
- 박선희·오택근·이경남·이명애·이영태·김호영·손은아(2021),『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문해력, 수리력 진단도구 개발(II): 문해력, 수리력의 예시문항 개발 및 타당성 검토(RRI 2021-7)』,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준홍·조보경·박상욱·김지영·조재윤(2022),『초·중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I): 진단 도구 개발(RRI 2022-4)』,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송창용·손유미·이재열·김민석·김혜정(2020),『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CESA) 지원과 활용 (2020)(2020-15)』,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정우·구남욱·이인화(2016),『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에서의 학생평가 방안: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중심으로(RRE 2016-10)』,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창덕·임칠성·심영택·원진숙(2006),『삶과 화법: 행복한 삶을 위한 화법 탐구』, 서울: 박이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중학교 국어 (ORM 2021-49)』,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언어문화연구원(2022), 시험 안내, ToKL 국어능력인증시험, 검색일자 2022. 5. 16., 사이트 주소 http://www.tokl.or.kr/asp/information/sub01_01.asp.
- Battelleforkids. (2022),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definitions, BattelleforKids, 검색일자 2022. 5. 17., 사이트 주소 <http://www.battelleforkids.org/networks/p21>.
- Griffin, P., McGaw, B., & Care, E. (2012),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methods and approach*, Dordrecht: Springer.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Trenholm, S. & Jensen, A. (2013),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UNESCO (2016), UNESCO Competency framework, UNESCO, 검색일자 2022. 5. 17., 사이트 주소 https://en.unesco.org/sites/default/files/competency_framework_e.pdf.

초·중학생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에 대한 활용 현황 및 요구 조사

박준홍·김동섭·조보경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학생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활용 현황과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한 후,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술 통계 및 질적 내용 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활용 경험’, ‘수행평가 및 지필고사를 통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의 가능성’, ‘체계적인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의 필요성’, ‘진단 도구의 자체 개발 경험’, ‘진단 문항 자체 개발 시의 방해 요소’, ‘진단 도구 활용 시 고려 사항’, ‘진단 결과 제공 방식’의 7가지 측면에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의 활용 현황과 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 5가지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구어 의사소통 능력, 진단 도구, 진단 도구 활용 현황, 요구 조사

ABSTRACT

Analysis of the Situations of Use and Needs of Diagnostic Tools to Measur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Spoken Communicative Proficiency

Park Junhong · Kim Dongseop · Cho Bokyu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diagnostic tools designed to assess the spoken communicative proficiency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n. It aims to investigate the teaching and learning needs of both teachers and students in this context. Throug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eacher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study employ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The findings identify seven key areas for assessing tools related to spoken communicative proficiency, shedding light on the demands and needs of teachers and students. The study derives five implications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tools tailored for measuring spoken communicative proficiency.

KEYWORDS Spoken Communicative Proficiency, Diagnostic Tools, Use Situation of Diagnostic Tools, Needs Analysis